

쓰누가 소금: 저주받지 않은 유일한 소금

개요

와카사만(지금의 쓰루가시) 연안의 쓰누가 지역은 수세기에 걸쳐 품질 좋은 소금 생산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천황이 먹어도 안전한 유일한 소금으로 여겨졌습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수도에서의 정치적 음모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때문에 복수에 불타던 대신들이 일본 전역의 소금에 저주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주를 걸 때 그가 쓰누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잊어 그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저주를 면했다고 여겨져, 쓰누가는 궁중이나 도읍 귀족들에게 더욱 귀중한 소금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상세 정보

8 세기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따르면 유력 고위 대신이었던 헤구리노 마토리(~498 년)는 전설의 제 24 대 천황인 닌켄 천황(449 년~498 년)이 사망한 후 권력을 잡고 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마토리는 죽은 천황의 어린 아들인 후대 부레쓰 천황(489 년~507 년)을 대리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후사를 위해 만들어진 웅장한 궁전에 살았습니다.

부레쓰 천황이 성장하면서 그는 마토리의 아들인 헤구리노 시비의 비밀 연인인 가게히메에게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가게히메는 황태자의 권유를 거절하면 큰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지못해 만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마토리는 부레쓰 천황에게 말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서도 비웃으며 ‘누구를 위해 궁궐의 말이 있는 것인가? 물론 그의 명령을 따라야지’라고 말하며 고의로 말을 늦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레쓰 천황은 시 낭송회에서 가게히메에게 다가갔습니다. 헤구리노 시비는 방해를 하려고 했지만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두 젊은 남자들은 비유 속에 협박이나 모욕을 숨긴 시를 교환했습니다. 헤구리노 시비가 물러나기를 거부했을 때 부레쓰 천황은 다음 시가를 사용해 가게히메에게 사랑을 직접 선언했는데, 시비는 자신의 사랑이야말로 가게히메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부레쓰 천황은 그때 시비와 가게히메가 이미 연인 사이임을 눈치챈습니다. 말에 대한 것을 떠올리며 무례하게 격분한 부레쓰는 시비를 처형하고 마토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한으로 가득 찬 마토리는 죽기 전 마지막 복수로 바다의 소금 전체에 저주를 퍼부었고, 결국 저주받은 소금이 천황의 식탁에 오르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명을 언급했지만, 어쩌다 쓰누가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잊어버려 쓰누가 소금만이 천황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옛 이야기가 시사하는 대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쓰누가 소금이 높게 평가된 이유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와카사만과 수도의 관계를 강조하며, 궁정이나 귀족 사이의 일이 어떻게 비교적 작고 먼 연안지역에서 나는 상품의 평판과 소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시품

이 전시에서는 쓰누가의 소금 생산과 관련된 유물 및 복제품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들로는 마쓰바라 제염소 터에서 발견된 고대 도자기와 쓰누가에서 당시의 수도였던 헤이조쿄(현재의 나라)에 소금을 공급했다는 것을 나타낸 목제 패 중 하나를 복제한 것 등이 있습니다. 쓰누가의 소금 이야기를 전하는 일본서기의 1 페이지를 확대한 복제와 마쓰바라 제염소 터 사진도 정보 패널로 볼 수 있습니다.